

#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2년 2월 뉴스레터 vol. 51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이벤트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창립12주년 축하메시지

24%의 기적

총회의 계절

채비가 만난 사람들

저는 같이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장례후기

큰형님 가시는 길, 아름답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비 추모장례 이야기

오직 어머니를 추모하고 싶었던 작은장례

메멘토모리

호스피스 의사가 전하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창립 12주년 축하메시지

지난 뉴스레터 이벤트 ‘한겨레두레협동조합 12주년 축하인사 이벤트’에

150명이 넘는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조합원님께 감사드리며, 받은 축하 메시지 중 일부를 공개합니다.

12돌을 맞은 한두레협동조합의 발전을 기원하며 조합원으로서 함께 자축합니다.  
축하합니다!^^12돌을 맞은 한두레협동조합의 발전을 기원하며 조합원으로서 함께 자축합니다.  
축하합니다!^^

윤양근 조합원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12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 생각하고 있던 아름다운 마무리가 채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주년, 30주년... 꾸준히 함께 하겠습니다.

최성애 조합원

창립 12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검은 호랑이해는 그 상징성으로 보아, 한겨레두레의 비상을 위한,시곶말로 <운 때>가 맞는다  
고 봐야죠~~^^♡ 그냥 쪽 냅시다요~!

강도수 조합원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12주년을 축하합니다. 조합을 알고부터 삶과 죽음은 별개가 아닌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다시한번 12주년을 축하합니다

윤용호 조합원

한해한해가 나이도 들수록 빠르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노모가 계셔서 가입하게 되었는데 죽음을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삶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볼것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이 건강하고 바르게 커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김주철 조합원

지난 12년간 한겨레두레협동조합원 모두 함께 노력하여 조합원과 그 가족들 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 하고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큰 디딤돌이 되어 주셔서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좋은 선진 장례문화로 더욱 자리매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조합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교육을 받은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2주년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아버님 장례도 덕분에 잘 마쳤고 여러가지로 조합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합 창립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용찬 조합원

벌써 12주년인가요? 한겨레두레에 가입해서 채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노년과 임종을 새겨보고 있습니다. 채비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구요.

한겨레두레를 통해 저희 아버님을 뜻 깊게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늘 새기고 있습니다.

정설경 조합원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12번째 생일을 축하 드립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며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며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동숙 조합원

귀 조합과 인연&을 맺은 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종로 사무실에서 첫^^교육을 받을 때가 엇그제 같았는데 벌써~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사회적 책무와 상호 부조"의 정신에 관심이 있어 인연이 시작 되어~지금껏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초심의 마음을 갖고, 변화하는 세상에 들불처럼~항상, 꺼지지 않는 등신불처럼 자리매김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12주년 축하^^드립니다.

추병호 조합원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지난 12년의 행보와 사회에 끼친 업적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로 더욱 사회문화가 급변하는 요즘의 흐름에 부합되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추모형 작은 장례사업의 밝은 미래를 축복합니다.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장례문화로 세상을 변화하는데 앞장서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혜승 조합원

12주년 축하드립니다.

3개월전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알게 되어 바로 가입했습니다.

늦었지만 뜻있게 그리고 굳세게 조합을 운영하는 이곳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좋은 장례문화를 만들어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원지윤 조합원

## 참여이벤트 당첨 결과

건강제품 1박스: 김기성

채비메모리카드: 지두환, 고혜승, 김나무, 이흥구

커피 기프티콘 : 오성현, 이제연, 김대영, 전인호, 황호열

\*당첨이 되신 조합원들께 개별 연락드리고 발송하겠습니다



## 총회의 계절



총회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 무렵이 되면 전국의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총회 준비로 분주하다.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을 결산한다. 또 당해연도 사업과 예산을 계획한다.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도 받아야 한다. 정관이나 규약에 대한 개정 여부도 검토한다.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입후보 신청을 받는다. 총회가 3월에 있다면 적어도 석 달은 앞서 준비해야 한다. 대의원을 조직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지역별 선거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선거를 통해 조합원을 만나고 기층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포함)은 반드시 매 회계연도마다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한해 사업을 결산하고 새해 사업을 결정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협동조합은 총회로 시작하고 총회로 끝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떤 협동조합을 평가할 때 총회를 제대로 치르는가 아닌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2022년 우리 조합 연합회와 서울조합, 강원조합, 경기조합, 광주조합, 창원조합이 새로운 임기의 이사회를 구성한다. 그동안 조합을 이끌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회장과 이사장,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큰 변화를 앞두고 조합 이사회와 사무국은 차질 없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12년 차에 접어든다. 장례시장의 변화와 치열한 경쟁, 코로나19 속에서도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장례문화를 혁신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협동조합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고 아쉬움과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가입과 장례행사 건수는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백만 원 이상 고액불입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장례를 치른 후 현금 유입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혁신적인 채비장례를 위해 마련한 공간 운용으로 적자도 증가했다. 장례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제고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 조합은 그동안 위기를 돌파하고 과제를 해결하며 여기까지 왔다. 이제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아 조합원의 참여가 절실하다. 정기총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 특히 서울조합 제4기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 대의원총회에 참석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더욱 단단한 팀을 구성해 혁신과 도약을 이룰 것이다.

총회는 협동조합의 꽃이다. 그 꽃은 조합원의 참여로 활짝 피어날 수 있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 저는 같이 물어주는 사람입니다

전승욱 채비장례 추모플래너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조합에서 추모식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합니다.

요즘 큰 장례식보다는 가족들과 조촐하게 작은 규모의 장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족추모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할지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준비합니다.

### Q: 추모장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기존 장례문화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장례식은 대부분 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에서 치러지는데, 고인을 위한 추모보다는 문상객을 접객하는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황없이 치르는 경우가 많고 불필요한 비용도 많이 듭니다.

추모장례는 모든 것을 고인과 가족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고인께서 살아오셨던 생애와 삶의 모습을 추모식에서 함께 되돌아보고 그동안 못했던 마지막 인사나 사랑, 용서의 말들을 함께 나누면서 고인에 대한 추모와 이별의 슬픔을 위로 받는 장례서비스입니다.

### Q: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함께 일하게 되었는지요?

2019년도에 김상현 이사장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행사 중심의 기존 장례문화를 바꾸기 위해 10여년을 고군분투하며 애써왔다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훌륭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부모님과 제 장례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보니 새로운 장례문화를 위한 다음 단계가 ‘추모 중심의 작은장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묵회활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돌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아쉬움은 깊이 있는 이별과 위로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추모장례에서 그런 바람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Q: 평소에 장례 문화와 죽음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의식이 있으셨는지요?

장례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장례 관련 상품의 원가를 모른다 해도 어느 정도 가격일지는 예상해볼 수 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매겨지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내내 손님만 치르다가 끝난다는 거죠. 장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주 큰 상처와 힘든 시간인데 그것

을 제대로 위로 받지 못하고 슬픔을 느낄 시간도 없이 행사 중심으로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정작 고인은 잊혀지는 관계중심으로 행사가 끝나다 보니,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장례 이후 일상으로 돌아간 삶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묵회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이 죽음의 문제에서 받는 상처와 상실감을 잘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Q: 가장 기억에 남는 추모장례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따님이 이제 혼자 상주가 돼서 어머니 추모장례를 치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따님이 혼자 지내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와 좀 긴밀하게 준비를 좀 해 나갔어요. 상주 되신 따님이 처음으로 치러보는 추모장례에 대해 많이 어려워하시고 당황하셨는데 같이 준비를 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추모식에서 독특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추모 순서 중 어떤 따님의 친구분이 나오셔서 그동안 고인에게 살아생전에 따뜻한 밥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제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선희씨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서’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장례식 어울리는 노래도 아니고, 장례식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처음인 상황이었는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조문객들이 노래를 따라 했어요.

가사 중 서로 만나 서로 사랑을 하면서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듣는 저도 부르는 조문객들도 모두 가슴이 뜨거워지는 몽클한 경험을 했습니다.

**Q: 채비플래너로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거나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추모장례가 기대만큼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예비상주들에게 추모장례에 대해 취지를 설명하면 다들 너무 좋다고 하는데, 막상 본인이 하려는 것은 꺼려하실 때가 있어요.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행사도 아니고, 주변에서 의식하는 생소함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길 만한 문화적 장벽이 있는 거지요. 추모장례를 함께 준비하다가 막상 상이 발생하니 일반3일장으로 변경하신 분도 계셨어요.

**Q: 평소에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영역에 관심이 많았는지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 누구와 경쟁해서 생존하는 방식이 아닌,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삶, 서로 도움을 주는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한 공부도 했고, 한겨레두레 외에 한 두 군데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고, 마을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분을 메우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평소에 많이 합니다.

**Q: 끝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추모장례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채비추모장례는 장례식의 한 종류나 예식이라기보다 유족들을 위한 위로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유족들이 추모식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는 소감을 많이 듣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조합처럼 추모장례를 전문적으로 잘 치를 수 있는 장례서비스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모 중심의 장례문화가 확산되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 큰형님 가시는 길, 아름답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인을 통해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알게 되어 형수님에게 가입 권유하여 형수님이 가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성 뇌종양으로 힘들어하시던 큰형님이 소천했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장례지도사 한지윤 팀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되어 저희 가족들은 모든 절차를 장례지도사님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지도사님이 장례 진행을 꼼꼼하게 챙겨주셨고 무사하게 장례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명절연휴때 돌아가셔서 꽃을 구해오기가 힘드셨을 텐데 큰형님 가는 길에 꽃장식을 화려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지윤 팀장님, 명절 추석당일까지 큰형님 가시는 길을 챙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한호성 조합원

## 오직 어머니를 추모하고 싶었던 작은장례



“장례 생각을 하면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남동생은 해외에 있어서 제가 준비해야 했어요.

기존의 3일장, 접객중심의 장례 문화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오래 준비하고 결정했습니다. 가족 중 어르신에게 미리 설명하여 설득하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족끼리 상의하고..

그렇게 가족 중심의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상주는 그렇게 어머니를 추모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었다.

그와 남편의 사회적 활동으로 볼 때 많은 손님이 올 것이다. 유명한 이름이 나열된 3단 근조화를 울타리처럼 세워놓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생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마지막 몇 년을 요양원에서 고생한 어머니께 깊은 추모를 드리며 보내고 싶었다.

운명한 첫날 어머니를 D병원 안치실에 모시고 입관, 발인, 화장 일정을 잡았다.

빈소 없이 오로지 추모식만 진행하기로 했다. 조문객도 없고, 부의금도, 육개장도 없지만 어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 한 두가지 준비하고, 이별편지와 추모영상과 유품을 준비하기로 했다. 공간채비에서 처음 하는 본격적인 추모식이라 무척 긴장되고 조심스러웠다.



다음 날 충무로 공간채비에 4식구 중에 3명이 모였다. 상주의 큰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코로나로 입국을 못하였다. 안타까운 상황에서 화상프로그램으로 큰 딸이 미국에서 실시간 참여하였고, 대형 스크린에 비친 미국에 있는 큰 딸과 함께 곁에 있는 것 같이 추모식을 진행했다. 제사와 스님의 독경은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다. 1시간30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유족과 참석자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장례 준비를 하는 내내 어머님과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만일 병원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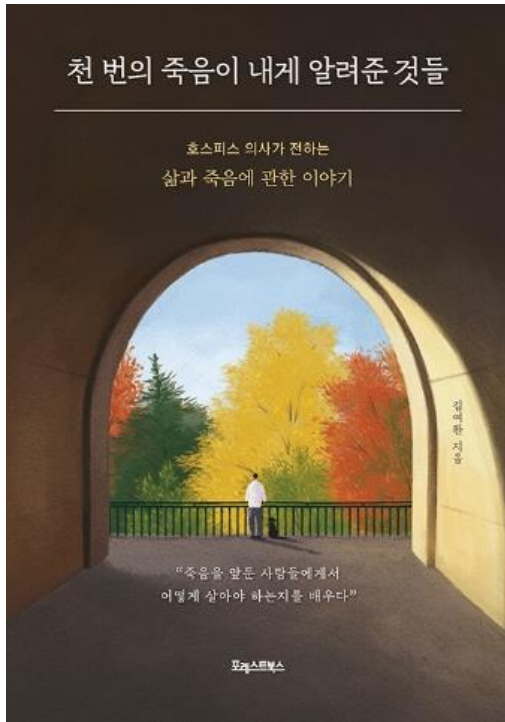
기존의 상례와 손님맞이로 슬퍼할 거를도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를 충분히 추억하고 애도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이고, 어머니를 잘 보내드린 것 같아서 흡족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피곤하지 않았고 쉬면서도 어머니의 죽음을 깊이 애도 할 수 있었다고, 그 과정이 큰 위로를 줬다고, 상주는 1년이 지난 후 인터뷰에서 말하였다. ✿

전승욱 | 채비장례 추모플래너



## 호스피스 의사가 전하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 천 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

김여환 | 포레스트북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을 금기시하는 우리는, 죽음의 맨얼굴을 애써 보지 않으려 하다가 부모나 배우자, 자식처럼 가까운 사람을 잃고 나서야 허둥지둥 죽음에 관해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또다시 현재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처럼 임종실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인생이라는 웅장한 공연의 커튼이 내려가는 그 순간, 당신과 나는 무엇을 뜨겁게 느끼면서 육체와 이별하게 될까.

저자는 편안하게 삶을 끝내는 환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암에 걸렸고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죽음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나 거쳐 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간혹 가족들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면 상태가 나빠

지리라 생각하고 감추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의외로 통증 조절도 수월하고, 심적으로도 더 편안해한다.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을 알고 숨이 찬 것과 무슨 영문인 지도 모른 채 숨이 찬 것은 공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환자는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더 숨이 차고, 숨이 차오르면 그만큼 더 불안하고 두렵다. 그러니 가족들은 암 환자를 나약한 존재로 단정 짓지 않고 아프기 전과 같은 인격체로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죽음은 호스피스 병동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운전을 하다가, 죽음이 가자고 하면 우리는 두말없이 따라가야 한다. 누구나 죽음은 처음 해보는 경험이기 때문에 앞선 이들의 경험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가장 건강할 때 자신의 죽음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준비해 두면, 남은 인생은 선물처럼 주어지고, 인생을 더욱 더 활기차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 소중한 지인에게 **하나둘키트**를 선물해주세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올해 12년 차에 접어들면서 조합원 부흥운동 ‘하나둘하나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건강한 장례문화가 정착하려면 더 많은 조합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상업적 장례를 상호부조의 장례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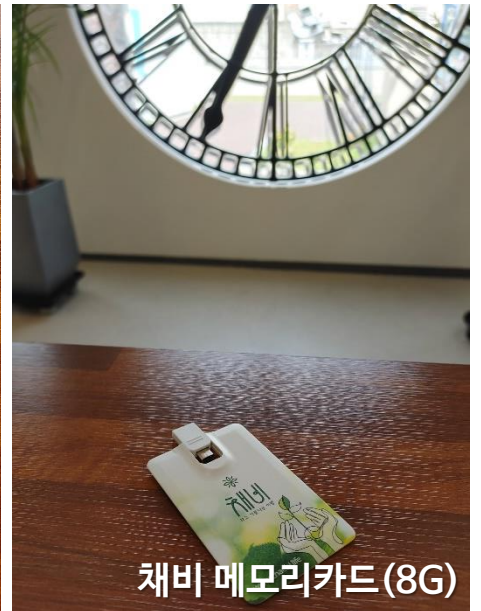
하나둘키트는 한겨레두레에 대한 소개와 장례에 대한 준비를 담았습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우리 조합을 소개할 만한 지인에게 전달해주세요

비조합원이시라면, 저희 조합을 알기 위해 신청해주세요



하나둘 키트 구성품



채비 메모리카드 (8G)



하나둘키트 언박싱 소개영상  
보러가기

하나둘키트 신청 CLICK

## 2022. 1월

이장우 조합원 모친상  
손성희 조합원 지인상  
배병운 조합원 부친상  
김현식 조합원 모친상  
김상현 조합원 지인상  
이흥원 조합원 조카상

김성희 조합원 모친상  
권영석 조합원 모친상  
정영섭 조합원 모친상  
김무아 조합원 부친상  
박사훈 조합원 조카상

김문중 조합원 부친상  
임승환 조합원 부친상  
이정미 조합원 시부상  
김규원 조합원 모친상  
이상현 조합원 본인상

## 2021. 12월

송광섭 조합원 부친상  
이경상 조합원 모친상  
고길석 조합원 배우자상  
이상근 조합원 모친상  
김주혜 조합원 부친상  
강신원 조합원 모친상  
이승철 조합원 부친상

유동환 조합원 부친상  
조향숙 조합원 시모상  
박중언 조합원 빙모상  
오승관 조합원 부친상  
유창복 조합원 부친상  
이현교 조합원 모친상  
강을규 조합원 부친상

김현배 조합원 모친상  
이형철 조합원 모친상  
이종훈 조합원 배우자상  
최락봉 (추모지원장례)  
김라영 조합원 모친상  
김태훈 조합원 부친상

## 2021. 11월

최 준 조합원 부친상  
김윤기 조합원 지인상  
전복경 조합원 부친상  
김용기 조합원 본인상  
류연선 조합원 형제상

백찬홍 조합원 부친상  
이형범 조합원 모친상  
박지영 조합원 모친상  
박인자 조합원 부친상  
김수연 조합원 시부상

한효정 조합원 모친상  
이상훈 조합원 모친상  
이상훈 조합원 부친상  
김현숙 조합원 모친상  
임충재 조합원 빙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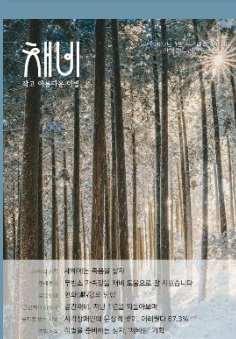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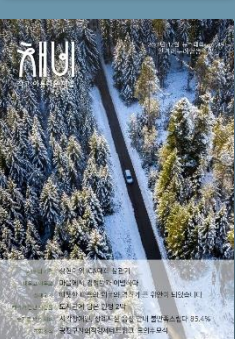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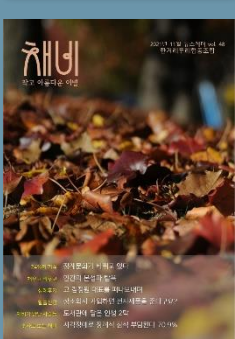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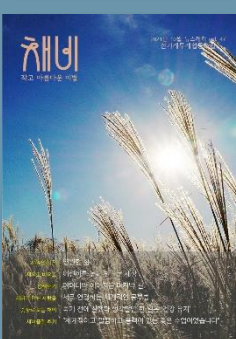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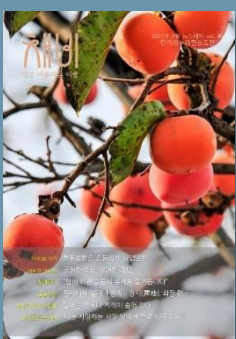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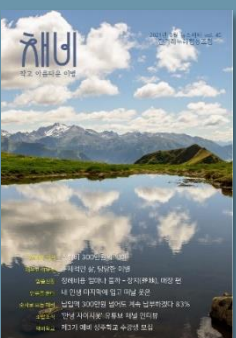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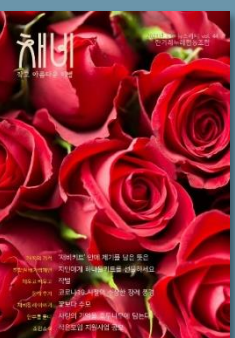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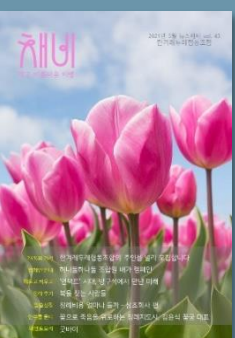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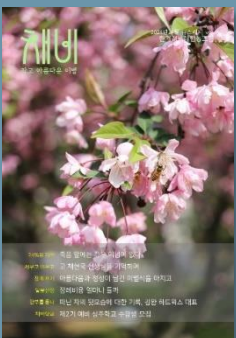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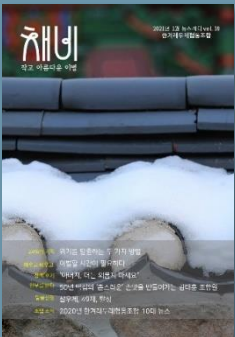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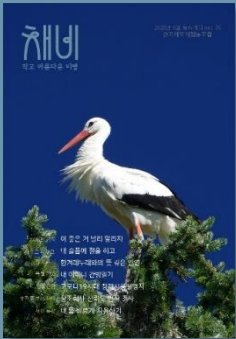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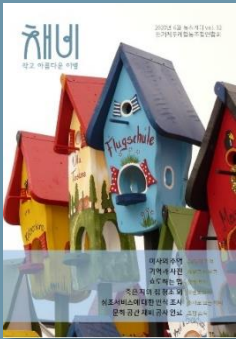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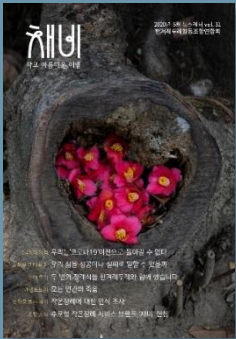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http://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